

이성주의의 기억말소와 비올레 르 뒝의 근대건축이론

강 태 응

(건축학 박사, 단국대학교 강사)

주제어 : 비올레 르 뒝, 데카르트, 방법적 회의, 이성주의, 4규칙, 기억

1. 도입

건축 이론가이자 비평가인 포티(Forty, A.)는 니체(Nietzsche, Feidrich Wilhelm)의 주장¹⁾을 인용하며, '기억과 역사의 말소(the erasure of history, and of memory)'가 근대주의 건축²⁾(modernist architecture)과 근대주

의 화가(modernist painter) 그리고 조각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작업이었음을 말했다.³⁾ 근대주의자(modernist in architecture)들에게 건축을 옥죄고 있었던 건축의 신화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삭제되어야 마땅한 장애물이었다. 그러나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역사와 기억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주도권자의 도구와 개인의 도구로써 명확하게 역사와 기억을 구별하고 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사회적 현상을 왜곡시켜 개인들을 지배하는 주도권자의 충실한 도구로 사용된다. 반면 개인들은 역사적 헤게모니에 대항할 그들만의 도구로 바로 기억이라는 집산적인(collective) 장치에 의지한다고 주장한다.⁴⁾ 벤야민에 주장에 의하면 역사의 삭제와 발굴은 주도권자들의

1) "it is possible to live almost without memory ... but it is altogether impossible to live at all without forgetting"

2) 포티는 이 글에서 'modernist architecture'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단어의 우리말 의미물 그 글의 행간을 통해 유추해 보면 'Modernism in architecture (근대주의 건축)'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근대건축을 근대에 나타난 단 하나의 건축적 현상으로 알고 있었지만 우리말의 근대건축은 영어에서 세 가지로 나뉜다. 'modern period architecture(근대시기건축)', 이것은 근대시기 즉, 일반적으로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의 시기에 등장했던 모든 건축행위를 말한다. 물론 근대의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modern movements in architecture(근대건축운동)', 이것은 근대의 시기에 일어난 건축행위 중에서 근대성(modernity)에 대한 인식과 근대성이 만들어내는 건축적인 문제를 어떻게 건축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표현하고 시도한 운동을 총칭한다. 마지막으로 'Modernism in architecture(근대주의건축)'는 위의 근대건축운동 중에서 근대이후에 건축에서 주도권을 쥔 취한 건축운동이며 이 건축 사상은 20세기 중반까지

건축의 담론을 지배하였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황보봉, 근대건축, 근대건축운동 그리고 도꼬모모,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4. 5 참조

3) Forty, A, Words and Buildings: a vocabulary of modern architecture, Thames & Hudson, New York, 2000, p. 212

4) 앞의 책, p. 215

통치를 위한 도구 중 하나로 당시의 주도세력인 신중산자본세력(bourgeois)의 개화를 위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역사와 함께 기억이 삭제됨에 따라 그들의 역사를 전제할 장치가 없어진 것이다. 근대주의자(modernist in architecture)들은 역사와 기억을 같이 보는 오류를 범했던 것이다. 경험의 산물인 기억은 역시 근대주의자들에게는 명확한 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변수일 뿐 시대를 초월하는 건축을 찾기 위해서 역사의 부정과 기억의 삭제는 첫 번째로 해야 할 작업이었다. 그들에게서 역사적 양식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교육의 산물로 인한 기억의 집합체에 불과했고 새로운 양식은 그것들의 삭제로부터 시작됨이 마땅했다.

이러한 근대주의자들의 작업은 17세기 데카르트(Descartes R.)가 그의 방법적 회의의 4규칙을 설명하기에 앞서 그 당위성을 위해 제시한 비판적 시각과 흡사한 부분이 있다. 데카르트는 집산적으로 축적된 지식에 대해 무효성을 주장하며 그 실재적인 예로 중세의 건축과 도시의 무질서함을 들었다. 중세의 건축은 철저한 계획에서 통제된 건축이 아닌 상황에 따라 지어진 집산성의 특징을 갖는 건축이며 무질서와 혼란의 치유를 위해 기존의 것들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가치로 강력한 통제 아래에서 재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 흥미로운 것은 19세기 중반 근대주의건축을 비롯한 근대건축운동의 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비올레 르 뒤크는 그의 건축강의 제 10강좌에서 새로운 시대의 건축을 찾기 위해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의 4규칙을 건축에 적용하기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는 데카르트가 4규칙을 적용하여서 진리에 접근 했듯이 만약

에 우리가 그 규칙을 19세기말의 건축의 새로운 양식을 찾는 데에 적용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⁶⁾

본고는 주지의 사실인 비올레 르 뒤크가 새로운 건축을 위해 데카르트의 방법론의 적용을 주장한 근대적 사고 안에 숨겨져 있는 이성적으로 불순한 요소인 기억과 비올레 뒤크를 포함한 근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성적 사고와의 관계를 다시 조명하려 한다. 여기서 기억은 단순히 무엇을 기억한다는 것 뿐 아니라 계산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 이외의 것들을 포함한 개념이다. 이 같은 논의는 그 범위가 넓고 철학적인 담론과 인식론의 범주에까지 들어야 하지만 본고의 논의는 건축에서의 기억에 대해 비올레 르 뒤크의 건축강의 제 1강좌와 제 10강좌 그리고 데카르트가 의도한 방법적 회의의 4규칙의 의미의 분석에 한정지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데카르트의 방법론에서 나타나는 기억이라는 요소의 의미와 그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할 것이고, 과연 비올레 르 뒤크가 주장한 건축강의 제 10강좌의 방법론이 건축이라는 복잡한 담론에 유효했는지, 그리고 건축에서의 4규칙의 적용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2. 이성(reason)에 의한 예술의 가치 판단

비올레 르 뒤크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고딕건축 복원가며 수많은 복원으로 축적된 경험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조적 합리성을 도출해 내고 그것을 새로운 건축을 도출하기 위한 핵심적인 원리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인간의 이성에 의한 구조와 재료의 수학적 분

5) Rene Descartes and F. E. Sutcliff, Discourse on Method and the Meditation, Penguin, London, 1968, pp. 35-36

6) Viollet-le-Duc, Lecture on Architecture, Volumn I, p. 450

석은 그 명증성으로 인해 당시 진부한 과거의 양식을 단절하고 새로운 건축을 바라는 젊은 건축가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비올레 르 뒝이 엄격한 이성적인 접근을 건축행위의 중심에 놓은 것에는, 이성적 구조의 추구를 위해서라기보다, 먼저 예술로서 건축의 위치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1864년과 1872년에 순차적으로 출판된 ‘건축 강의’(Entretiens sur l’Architecture)의 제1강좌에서 비올레 르 뒝은 예술을 이렇게 정의했다.

“ 그 기원으로 볼 때에 예술은 어떤 정신적 본능에 의해 통제되는 자연발생적인 열망이 형상화된 것을 말한다..”⁷⁾

비올레 르 뒝은 예술의 정의를 위해 ‘미’라는 것을 논의하지 않고 ‘본능에 의해 통제되는 열망의 형성화’라는 다소 형이상학적인 요소를 들고 있다. 건축이 예술의 범주에 속하기 위해서 이 요소는 기억(memory), 역사(history), 삶(life)이라는 세 요소로 치환되어 건축에 각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⁸⁾ 즉, 하나의 물리적인 실체인 건축물이 예술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 자체보다는 건



<그림 1> 웹(Philip Webb)이 설계한 레드하우스(The Red House: 1859-1860)

축물이 담을 수 있는, 또는 그것에 부여되는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건축물이 예술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건축물, 그것에 얽힌 문화, 사회적인 연결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⁹⁾ 이 같은 시각은 19세기 중반 이후에 영국에서 등장했던 예술수공예운동(Arts and Crafts Movements)이 추구한 건축 전반에 걸친 예술론과 일치한다. 브룬델 존스(Blundell-Jones, P.)는 웹(Webb, Ph.)이 설계하고 예술수공예운동의 출발점이라고 여겨지는 레드 하우스(Red House)의 의미는 그것이 보이는 시각적인 요소들보다도 그 집에 얽힌 마을 주민들과 그 사용자가 공유하는 기억들이라고 주장한다.¹⁰⁾ (그림 1) 이 기억들이 이

7) " ... The Arts are, in their origin, natural cravings, which, to obtain their satisfaction, assume a form subordinate to certain instincts of the soul, ... ", Viollet-le-Duc, 앞의 책, p. 12

8) "Building a hut with branches of trees is not Art: it is merely the supplying of a material want. But to hollow out a dwelling in a declivity of soft rock; - to divide the excavation into compartments of different sizes according to the number and habits of the occupants; - to leave pillars for the greater security of the suspended mass above; then gradually to cover these walls and pillars left in the solid with gravings and signs intended to commemorate an event, such as the birth of a child, the death of a father or of a wife, or a victory gained over enemy, - That is Art.", 앞의 책, pp. 12-13

9) 비올레 르 뒝의 이러한 시각은 1840년에 처음 출판된 러스킨의 시각과 상당히 유사하다. 러스킨에 의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땅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시(Poetry)와 건축이며 이중 건축은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적을 동시에 기록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했다.(Ruskin J., The Seven Lamps of Architecture, Dover Publications, INC., 2nd ed., New York, 1880, pp. 178-180)

그러기에 건축은 인간의 두 가지 면, 즉, 정신과 육체의 기억, 다시 말하면 바로 삶(life)을 저장하는 매체다. 삶이 기록되기에 건축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의미로 인해 건축은 예술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10) Blundell-Jones, P. Architecture as mnemonic: The Accumulation of Memories around Morris's Red House, Nineteenth Century Context, Vol 21, pp. 20-29, 2000

집을 아름답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그러나 비올레 르 뒝과 예술수공예운동의 예술로서의 건축의 시각은 극복할 수 없는 시간적 간극이 존재한다. 비올레 르 뒝에게 위에서와 같은 예술로서의 건축은 고도로 문명화된 시기 이전까지만 유효한 것이다. 예술이라는 것은 문명의 발달하고는 무관하게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며 더욱이 과학의 발달정도에 따라 그 예술성을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거 원시시대의 예술 활동이 19세기의 활동보다 더 열등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예술이라는 것이 앞에서 그가 주장했듯이 예술의 표현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정신적인 본능에 의한 것이고 본능이기에 어느 시대에나 존재한다는 것이다¹¹⁾. 문제는 비올레 르 뒝이 현존했던 시대인 19세기였다.

비올레 르 뒝은 예술이 인간의 감성에 의해 판단되고 선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성에 의해 추론(reasoning)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올레 르 뒝은 그 이유로 복잡해진 사회구조를 들었다. 과거의 덜 문명화된 사회의 구조는 지금보다 단순했기 때문에 개개인의 감성을 표현하고 공유하는데 19세기보다 더 수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세기의 사회는 다원화되고 분화되고 그로 인해 복잡성이 이전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본능과 느낌에 의지하여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선택의 문체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비올레 르 뒝은 예술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것을 다시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전 시대보다 더 강하게 우리의 이성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비올레 르 뒝의 예술론에 의하면 문명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복잡해지고, 고도화 되고 그 고도화된 문명사회

의 예술은 더 강한 이성에 의한 추론을 필요로 하는, 발달론적 시각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비올레 르 뒝이 추론의 방법으로 데카르트의 방법론적 회의를 들고 나온 것은 그리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각 시대마다 지배했던 담론들은 항상 덩치만 커서 그 몸집을 주체 못하는 건축의 머리 위에 있지 않았던가? 로마 정복자의 건축이 그러했으며, 중세의 기독교 정신이 그러했으며, 근세 이후에는 데카르트의 이성주의가 그러하지 않았던가? 사실 데카르트의 이성주의는 19세기로 오면서 자본, 새로운 기술과 재료에 도움을 받아 사회 전반에 개화하여 성장의 시기에 있었고, 건축은 그 끝자락에서 다시금 그 둔한 몸집을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데카르트가 그 4가지 규칙들로 인해 이성이라는 도구를 발견하고 그 이성의 도움으로 불변하는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과 같이 비올레 르 뒝도 이성과 4 규칙들의 도움으로 시대에 적합한 건축양식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다.

과연 데카르트의 방법론은 시대의 건축을 찾고자 하는 비올레 르 뒝의 여정에 확실히 동참하였는가?

3. 비올레 르 뒝의 열 번째 강좌 : 19세기의 건축-방법론의 중요성 (Lecture X : Architecture in The Nineteenth Century-Importance of Method)

첫 번째 강좌에서 주장했던 이성적인 추론에 의한 참된 건축 찾기는 그의 열 번째 강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 여기서 비올레 르 뒝은 데카르트 방법서설의 4 규칙들을 들

11) Viollet-le-Duc, 앞의 책, pp. 13-29

면서 이것이 19세기라는 시대에 맞는 건축을 찾는 데 결정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 4 규칙들을 간략하게 서술하면...

첫 번째,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진리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최상의 해결책의 도출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그 문제의 대상을 잘게 분해하라.

세 번째, 분해된 생각의 파편들이나 대상들을 가장 단순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으로, 즉, 서서히 산을 올라가듯이 엄정한 순서에 의해 발전시켜나간다.

네 번째, 어떠한 것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철저히 검증하라.¹²⁾

그러면 이 4 규칙들이 건축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자. 비올레 르 뒤는 첫 번째 규칙을 건축적인 실체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의 도출 단계로 생각했다. 먼저 그는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건

축양식에 대한 선입견이나 가정을 버리고 엄정한 추론을 통하여 다양한 인종, 다양한 시대, 장소에서 행해졌던 모든 건축적인 행위를 분석해야 한다고 하였다.¹³⁾ 그는 이런 추론의 예로 몇 가지를 들었는데, 일정 규모의 폭과 높이를 갖는 홀(hall)이 그렇지 않은 건축공간보다 더 크고 높은 창을 갖는 것은 채광을 위해서 옳으나 기능상의 필요성이 없으면서 그러한 건축요소를 굳이 사용한다면 그것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구조적인 힘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흐름이 생기는 것 같은 구조적인 요소를 사용하는 것은 진실되지 않다 등이다.¹⁴⁾ 인류가 지금까지 해 왔던 건축에 대해 이성적인 추론(데카르트는 이러한 작업을 지적(知的) 직관(直觀)이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후에 논의할 것이다.)을 적용해 들어간다면 중국에 가서는 더 이상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인종에게나 적용해도 누구나 인정하는 결론이 생산되는 건축적 진리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그가 생각해낸 건축에서 의심할 수 없는 진리란 무엇인가? 비올레 르 뒤는 그것을 “기능과 필수적 구조의 진실한 표현”¹⁵⁾이라고 말한다.

데카르트의 두 번째 규칙인 분해의 원칙은

12) "The first was never to accept anything as true that I did not know to be evidently so; that is to say, carefully to avoid precipitancy and prejudice, and to include in my judgments nothing more than what present itself so clear and so distinctly to my mind that I might have no occasion to place it in doubt.

the second, to divide each of the difficulties that I was examining into as many parts as might be possible and necessary in order best to solve it.

The third, to conduct my thought in an orderly way, beginning with the simplest objects and the easiest to know, in order to climb gradually, as by degrees, as far as the knowledge of the most complex, and even supposing some order among those objects which do not precede each other naturally.

And the last, everywhere to make such enumerations and such general reviews that would be sure to have omitted nothing." Rene Descartes and F. E. Sutcliff, Discourse on Method and the Meditation, Penguin, London, p. 41, 1968

13) Viollet-le-Duc, 앞의 책, p. 451

14) "It is true that a great hall, a very long, wide, and lofty interior, ought to be lighted by windows larger than those which suffice for an ordinary room; the contrast is false. ...It is true that a column is a support, -not a decoration, like a frieze or an arabesque; if then you have no occasion for columns, I can not understand why you furnish your facades with them. ... It is true that vaulting ought to be maintained by buttresses, whatever form you give them; but it is a falsity to introduce salient pilasters, engaged columns, and buttresses, if there are no thrusts to which resistance must be opposed.", 앞의 책, pp. 458-459

15) "the true expression of the requirements and necessities of the structure" 앞의 책, p. 459

첫 번째에서 도출된 공리인 “기능과 필수적 구조의 진솔한 표현”을 바탕으로 실제 적용 가능한 원리의 도출을 위해 사용 되었다. 비올레 르 뒤은 이를 위해 가장 단순한 구조의 건축에서부터 복잡한 구조의 건축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연구할 것을 강조했다. 즉, 그리스의 건축에서 중세의 성당건축에 이르는 건축을 분석함으로써 시대를 초월하면서 각 시대의 건축 형태를 결정해 온 동인(動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시대별로 건축은 다른 형태를 보이지만 이것은 용도와 재료, 그리고 그 재료에 맞는 구축방법에 의해 결정되어 시각으로 다르게 보일 뿐, 이것을 통제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다. 비올레 르 뒤은 이것을 기하학이라고 주장했다.¹⁶⁾

비올레 르 뒤은 데카르트의 세 번째 규칙인 종합의 원칙(Rule of Synthesis)을 가장 중요한 단계로 생각했으며, 이 단계에서 그는 ‘평형(equilibrium)’이라는 요소를 도출했다. 기존의 건축적인 범주와 시대순의 나열에서 벗어나, 비올레 르 뒤은 그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규칙에서 도출된 공리와 원리들을 바탕으로 건축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목조 건축’, ‘콘크리트 건축(이 범주는 로마건축이 대표된다.) 그리고 ‘조석적 건축’이 그것이다. 비올레 르 뒤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가 효과적으로 융합되면서 중세건축(고딕)이 등장했으며, 이 건축¹⁷⁾은 물리적 원리인 ‘평형’을 중심에 두고 있다.¹⁸⁾ 첫 번째 규칙에서 도출된 ‘기능과 구조’, 두 번째 규칙에서 도출된 ‘기하학’ 그리고 세 번째에서 도출된 ‘평형’의 원리는 다시 데카르트의 세 번째 규칙을 수행하기 위한 개념 중 하나인 ‘정연한 방법(an orderly

way)’¹⁹⁾에 의해 통합되어진다. 이 개념은 방법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비올레 르 뒤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다. 그러면 그가 생각하는 정연한 방법(an orderly way)이란 무엇인가?

첫째, 먼저 사용할 재료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둘째, 그리고, 이 재료에 최종 결과물에 맞는 적당한 강성과 기능을 부여해야 하고, 그 결과물의 형태는 부여된 기능과 강성을 가감 없이 표현해야 한다.

셋째, 그 형태에는 조화와 통합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 원리는 축적, 비례체계 그리고 구조적인 요소와 다양한 요구사항의 수용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오너먼트(ornament)다.²⁰⁾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재료의 특성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이것을 통해 그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추력을 이해하고 추력과 재료의 특질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최적의 형태를 뽑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언급한 것들을 통합하는 장치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고전건축(Classic Architecture)에서의 대칭(symmetry)이나 획일성(uniformity)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비올레 르 뒤은 고전의 화석화된 비례개념보다는

19) 각주 12를 참조

20) “1st, we must know at the outset the nature of the materials to be employed; 2ndly, we must give these materials the function and strength required for the result, and the forms which most exactly express that function and strength; 3rdly, we must adopt a principle of unity and harmony in this expression- that is, a scale, a system of proportion, a style of ornamentation related to the destination of the structure and having a definite signification as also the variety indicated by the diverse nature of the requirements to be complied with.” 앞의 책, p. 462

16) 앞의 책, pp. 451-452

17) 고딕(Gothic)건축을 의미한다.

18) 앞의 책, p. 454

상대적인 비례체계를 주장한다. 이 체계는 기하학에 기인한 수치(dimension)의 개념과 연계되어 두 가지의 역할로 나뉜다. 전체 덩어리를 통제해 들어오는 것과 가장 작은 단위인 오너먼트로부터 통제해나가는 것이다. 이 통제 건축은 전체적인 통일성을 가짐과 동시에 경험자의 입장에서 좀 더 친밀한 건축적 크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²¹⁾

데카르트의 네 번째 규칙을 비올레 르 뒤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으로 이해했다. 이것은 앞서 논의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작업을 위한 중요한 선행 작업으로써 그 역할이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이집트 건축에 대한 자료의 축적은 단순히 양식의 재현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원리를 추출할 수 있는 대상의 선별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²²⁾

여기까지가 비올레 르 뒤이 이해한 데카르트의 4 규칙들이다. 그는 이 방법을 통하여 19 세기에 적합한 건축을 찾을 수 있음을 믿었으며 그 원리들 중 데카르트의 세 번째 규칙을 적용하면서 찾고자 하는 건축이 고딕건축에 그 근원이 있어야 함을 주장했다.

4. 데카르트의 ‘지적(知的) 직관(intellectual intuition)’과 ‘연역(演繹)작업(deduction)’

여기서 잠시 비올레 르 뒤의 해석을 접어두고 4 규칙의 철학적인 접근은 어떠하였는지 데카르트의 저작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1637년도에 출판된 ‘방법서설’²³⁾에서 데카

르트는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4가지 규칙을 제안했다. 이 방법의 첫 번째 결과물로 데카르트는 우선 이성이라는 의심할 수 없는 진리를 도출했다. 다시 데카르트는 이 이성이라는 절대적인 가치기준을 가지고 4가지 규칙을 적용, 불확실한 현실을 재단하여 정제된 사실을 도출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⁴⁾ 그는 이 규칙들을 어떻게 적용하였는가?

그는 첫 번째 규칙에서 명증한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을 ‘지적 직관’²⁵⁾이라고 제시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분석과 종합의 원칙이며 네 번째에서 데카르트는 새로운 진리의 발견 내지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이

란 긴 제목을 달고 있다.

24) 본고에서는 논의할 대상이 아니지만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는 먼저 ‘신(God)’의 존재라는 것이 전제되면서 유효하다. 신의 존재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증한 것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에서 입증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순환논리가 존재한다. 즉, 데카르트는 이미 신의 존재를 먼저 전제하고 그의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다. 명증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 이성은 신(God)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성의 도움으로 명증한 것을 인지하고 명증한 것의 존재는 다시 신(God)의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진리도출의 논리로 들어가면, ‘절대 진리’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인해 ‘절대 진리’의 기준이 도출되고 다시 이 기준을 기본으로 그 방법이 순환하여 진리를 도출할 수 있다는 논리는 무한 순환적인 구조를 갖는다. 즉, 결국에 가서는 수단이 목적을 생산하고 다시 그 목적이 수단을 지배하는 자가당착(self-contradiction)의 현상이 일어난다.

Anthony Kenny(ed.), *The Oxford Illustrated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pp. 124-127, 1997, 참조

25) 데카르트의 영역원본에 사용된 단어인 ‘직관(intuition)’의 어원은 라틴의 *intuitus*이다. 이것은 ‘to look upon’, ‘consider’ 와 ‘contemplate’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 단어는 이미 15세기부터 사용된 단어이나, 데카르트는 이것과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그는 같은 단어라도 그것이 분명히 ‘감각에 의한 직관’과 ‘지적작용에 의한 직관’으로 나뉜다고 하였으며 그는 ‘직관’이라는 단어를 후자의 의미를 사용되기를 원하였다. 이와 관계되어서 L.J. Beck은 1987년에 단순히 ‘직관(intuition)’이라는 단어대신 ‘지적작용에 의한 직관(intellectual intuition)’이라는 용어를 쓰기를 주장하였다. 본고에서는 Beck의 제안을 따른다.

21) 앞의 책, pp. 463-468

22) 앞의 책, p. 468

23) 이 논문은 ‘Discourse on the Method of rightly conducting one’s reason and seeking the truth in the science and in addition the Optics, the Meteorology and the Geometry, which are essays in this Method’

유로 네 번째 단계에서 '연역'이라는 작업을 들었다. 우리는 여기서 데카르트가 첫 번째와 마지막 단계에서 중요한 개념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지적 직관'과 '연역'이라는 개념이다. 이 두 개념들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1628년도에 쓰였으나 그가 사망할 때까지 출판되지 못했던 'Rules for the Direction of the Mind(1627)²⁶⁾'라는 논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1. '지적 직관'

이 논문에서 데카르트는 '지적 직관'에 대해 우리의 몸에 속한 감각의 기관이나 느낌에 의지하지 않은 즉각적이고 정신적인 자각에 의한 깨달음이라고 표현했다.²⁷⁾ 여기서 데카르트가 말하는 '우리의 몸에 속한 감각의 기관이나 느낌'이라하면 '상상(imagination), 지각에 의한 인지(sense-perception) 그리고 기억(memory)'이다. 데카르트는 앞에서 열거된 것들을 통해 획득되는 지식은 순수하지 못하여 삭제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오로지 이 '지적 직관'에 의해 판단을 하여야 하며 그것이 있기 때문에 명증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적 직관'은 현상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나의 현상을 인지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험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고 보는 순간 즉시(immediacy) "참(true)"임을 의심할 수 없는 것, 이러한 이성적인 작용이 바로 '지적 직관'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적 직관'으로 알 수

있는 현상은 무엇인가? 이 논문의 곳곳에 데카르트는 우리가 이러한 직관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하학과 수학뿐이라고 주장했다. 즉, ' $2+2=4$ ', ' $3+1=4$ '와 같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없이 참임을 알고 있는 것들이 바로 '지적 직관' 의해 발견할 수 있는 명증한 사실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들은 가장 작은 단위의 진리일 뿐 이것이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성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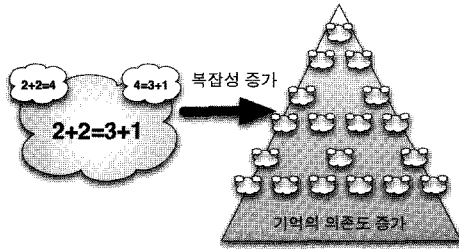
4-2. '연역 작업'

데카르트에 의하면 '지적 직관'에 의해 파악된 명증성이 입증된 단편들은 데카르트의 4 규칙 중 마지막 규칙이었던 검증의 단계에서 새로운 진리를 생산해 낼 수 있다고 한다. 즉, 각각의 공리들이 '연역'이라는 작업으로 연결이 되어 또 다른 진리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연역의 작업에서 데카르트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즉시성(immediacy)이 필요한 '지적 직관'과는 다르게 '연역작업'은 연속적인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삭제의 대상인 '기억'이라는 수단이 필요하다.²⁸⁾ 우리는 ' $2+2=4$ ' 와 ' $3+1=4$ '를 '지적 직관'으로 이것이 의심할 수 없는 공리임을 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단편이 ' $2+2=1+3$ '이라는 새로운 공리로 인정되기 위해서 연역이라는 작업이 필요하며 거기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기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역의 단계에서는 즉시성의 획득이 수월하지만 공리들 간의 연결이 복잡해지면 '기억'에 의지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더욱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26) 이 논문을 대중을 대상으로 쓰인 1637년도에 발표된 글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세부적인 부분까지 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1638년도 글은 1627년도 글의 대중판인 셈이다.

27) Descartes, R., trans. Cottingham, Stoothoff and Murdoch,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Descartes, Vol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New York, p. 43, 1985

28) Beck, L., The method of Descartes: A study of the Regular, Clarendon Press, Oxford, pp. 84-86, 1952



<그림 2> 지적 직관과 연역과정

‘연역’이라는 작업 가지고는 수행이 불가능하며 추가로 ‘열거’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작업은 오히려 ‘기억’라는 것에 더욱 의지하는 현상을 보인다.²⁹⁾(그림 2) 데카르트는 ‘지적 직관’이라는 과정에 통해 사유(thought)라는 것에 이성이라는 정신적인 순수성 외에는 어떠한 것도 포함되지 않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 추론의 작업이 복잡해지면 질수록 데카르트의 사유는 점점 그가 삭제하고자 했던 것을 포함하는 모순을 보이는 것이다. 이 모순적인 상황을 데카르트는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그는 ‘연역’과 ‘열거’에서 발생하는 즉시성의 결여를 끊임없이 빠르게 생각하는 연습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³⁰⁾ 그러나 이것은 그리 설득력 있는 방법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모순을 회피하기 위해 데카르트 학파(Cartesian)는 이후에 오히려 기억이라는 것을 감각적인 기억(sensible memory)과 지적적인 기억(intellectual memory)으로 구별하여 후자의 것을 그들의 범주 안에 포함시켰다.³¹⁾ 데카르트가 그토록 삭제하고 싶었던 지적(知的)으로 직관적이지 못한 요소가 공식적으로 테두리 안에 들어온 것이다. 다시 말해 데카르트의 방법에 엄정하려 하면 할수록 데카르트의 방법론은 점점 본 의도와는 다르게 순수

하지 못한 요소들(기억)을 포함해야 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을 보이는 것이다.

5. 데카르트의 방법론과 비올레 르 뒝의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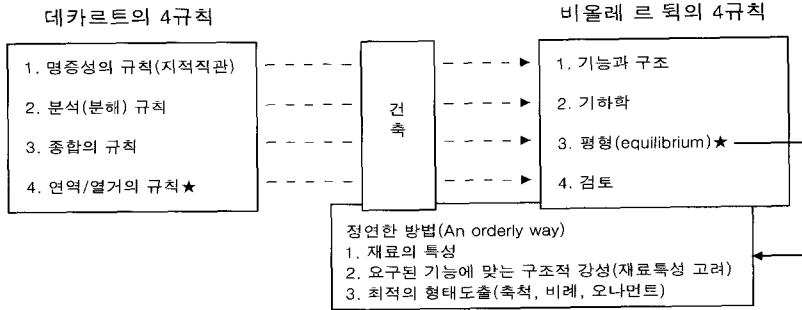
다시 비올레 르 뒝의 해석으로 돌아오자, 우리는 여기서 데카르트가 방법서설의 4 규칙들을 통해 주장하려 했던 것과 비올레 르 뒝의 해석에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올레 르 뒝은 방법서설의 4 규칙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결국은 시대에 맞는 건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데카르트가 첫 번째 규칙에서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지적(知的)직관’에 의해 비올레 르 뒝이 도출한 공리(axiom)는 ‘기능과 구조적 진실성’이었다. 건축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건축이 가져야 하는 절대적인 요소인 것이다. 이 공리는 두 번째 규칙에서 분석의 대상을 선정함에 기준이 되고 그 대상들의 분석에서 비올레 르 뒝은 다시 ‘기하학’이라는 또 하나의 공리를 도출했다. 첫 번째 공리인 ‘기능과 구조의 진실성’과 두 번째 공리인 ‘기하학’에서 비올레 르 뒝은 데카르트의 세 번째 규칙인 통합(synthesis)을 통해 세 번째 공리인 ‘평형(equilibrium)’을 도출해내었다. 네 번째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작업에 대한 검증의 작업으로 해석하고 있다. 결국 비올레 르 뒝이 찾고자 하는 건축의 원리는 세 번째에서 주장되는데 그것을 비올레 르 뒝은 고딕(Gothic)건축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기하학과 힘의 평형 그리고 기능의 수용과 그것에 따른 외부로의 가감 없는 표현, 이것이 그가 찾는 건축, 19세기에 필요한 건축이라는 것이다.

29) 앞의 책, pp. 114-116

30) 앞의 책, pp. 116-117

31) 앞의 책, pp. 121-122



<그림 3> 데카르트와 비올레 르 뒱의 4규칙 비교

그러나 데카르트는 그의 4 규칙들에 순서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그것들은 각각 동등의 위치에 있었으며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상호 간섭을 통해 하나의 진리로 나아가는 체계였다. 우리는 그의 첫 저서인 'Rules for the Direction of the Mind'에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이 미완의 저서에서 21 가지의 규칙들을 제시하였는데 방법서설의 4 규칙들의 주요 개념들이 순서에 관계없이 여기저기에 서술되어 있다. 때로는 '열거'와 '지적 직관'이 같이 서술되기도 하고, '연역', '열거'와 '지적 직관' 동시에 기술되기도 한다. 비올레 르 뒱이 최종 단계로 생각한 세 번째 규칙을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생각한 반면 데카르트는 비올레 르 뒱이 검증이나 자료수집의 단계로 여겼던 네 번째 단계를 가장 중요한 규칙으로 생각했다. 여기에서 방법론상의 중요한 차이가 발생한다. 데카르트의 방법론은 엄정하고 명증한 수학적 사고에 그 근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엄정함은 네 번째 규칙인 '연역'과 '열거'에서 그 이성적 순수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사고의 연속성이라는 특성상 '기억'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³²⁾ 그러나 비올레 르 뒱의 방법론에는 이 네 번째 규칙은 검증의 단계로 단순화 되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규칙들은 정연한 수학적 사고에 따라 도출되는 공리들이다. 여기에 멈춘 비올레 르 뒱의 방법론은 이미 수학적 순환 논리에 간혀 있는 상태인 것이다. 반면, 비록 데카르트 본인은 네 번째 규칙이 갖는 모순의 심각성을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방법론의 순환구조는 이미 네 번째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붕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성적이면 이성적일수록 그 모순은 더욱 심해진다.

6. 형태창출에 대한 집착과 기억의 소멸(annihilation of memory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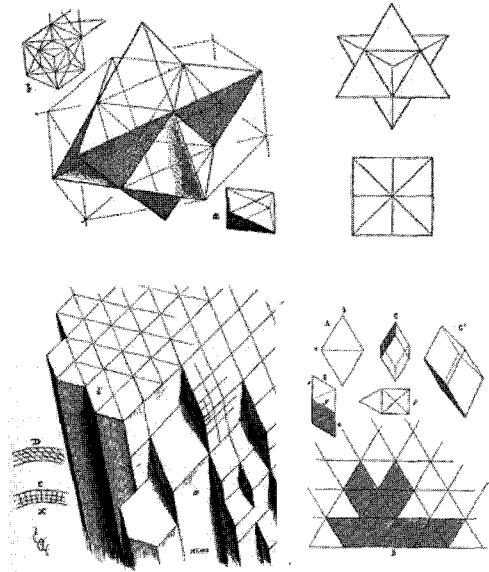
수학적 명증성으로 현상을 설명하려 했던 데카르트의 방법론은 네 번째 규칙의 핵심인 '기억'에 기생하는 '연역과 열거'라는 작업들에 의해 비로소 완성된다. 그러나 '기억'은 데카르트가 소멸시키고 싶었던 순수하지 못한 경험적 요소였다. 결국 이성적 추론은 가장 기본적인 공리의 인지에는 유효할지 모르지만, 좀 더 복잡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비이성적인 요소와의 공존이 불가피하다. 우리는 데카르트의 4규칙들이 가지는 의미에 비올레 르 뒱의 방법을 적용하여 재미있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그림 3) 비올

32) 르네 데카르트, 이현복 역, 방법서설: 정신지도도를 위한 규칙들, 문예출판사, 서울, pp. 314-325, 2001

33) Forty, A., 앞의 책, p. 206

레 르 퓌크의 과정은 실제적으로 세 번째 규칙에서 멈춘 셈이다. 비올레 르 퓌크는 데카르트의 네 번째 규칙을 그저 정보의 수집이나 검증의 단계로 생각하였다. 그렇다면 비올레 르 퓌크의 방법은 가장 단순한 형식적인 부분, 새로운 건축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자(因子)만이 생성해내고 그것들이 조합되어 지지 않은, 즉, 더 이상 진행 되지 않은 상태로 볼 수도 있다. 만약에 비올레 르 퓌크가 마지막의 규칙을 ‘기억’과 ‘역사’와 ‘삶’이라는 비이성적인 요소를 부여하는 단계인 ‘연역’과 ‘열거’의 단계로 해석하였다면 그의 건축과 이후의 건축은 어떻게 되었을까? 흥미롭게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비올레 르 퓌크는 이것과 비슷한 내용을 이미 그의 제 1강좌에서 언급했다. 예술로서의 건축론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의 제 10강좌에서는 소멸된 상태다. 그는 첫 번째 강좌에서 더욱 강한 이성적 추론을 주문했다. 왜냐하면 현상학적 복잡성 때문이다. 그러나 제 10강좌에서는 더 이상 현실을 안고 가는 건축은 없고 추상적 형태만이 있을 뿐이었다. 비올레 르 퓌크가 “Lecture on Architecture”에 앞서 출판한 “the Dictionnaire raisonne”에서 양식(Style)은 자연의 추상화에 기인한 기하학의 재현이라는 주장으로 볼 때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그림 4) 근대주의건축은 명증한 기능적 사고와 보편적인 미학을 제시하였지만 그것들은 이미 스스로 완결되고자 하는 순환 구조에 의한 생산물에 불과하다. 그것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생산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근대주의자의 방법론은 세 번째 규칙에서 멈춘 상태기 때문이다. 재료의 특성, 그 재료가 가진 구조적 특성과 새로운 용도에 따른 구조물, 그것을 통제하는 수학적 명증성은 분명히 새로운 건축을 위해 필요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 건축이라고 하는 문화적

코드를 만들기에는 부족하다. 데카르트의 네 번째 작업이 절대적이다.



<그림 4> 비올레 르 퓌크에 의한 기하학적 분석을 통한 형태 창출

7. 결론

근대주의자들의 작업으로 기억은 건축에서 사라지는 듯 했으나, 20세기 말,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기억은 다시 건축 전면에 등장한다. 물론 그것은 철학적 담론을 실제적인 현상으로 보이게 한 철학자들의 시각에 기인하지만, 도시는 집산적 기억축적의 산물로 건축가들에게 인식되었다. 기억에 대한 근대주의 건축의 병적인 결벽증과 그로 인한 집산적인 기억의 붕괴는 근대이후 도시에서 나타나는 소외(alienation)와 아노미(anomie)현상을 야기했음을 주장하며³⁴⁾, 독일의 건축가 옹거스(O. M. Ungers)와 이탈리아의 로시(Aldo Rossi)는 새로운 건축(Neues Bauen)에 의해

34) 앞의 책, p. 217에서 재인용

부정되고 소외되었던 문화적, 역사적 가치의 전달자인 기억의 집적물이 도시임을 강조하였다. 기억은 더 이상 역사와 연결된 현상이 아니라 도시를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매개체며 그와 동시에 도시 맥락을 생산해 내는 도구로서 건축담론 전면에 등장하였다. 그러나 건축담론에 있어 집산적 기억은 이미 19세기 중반 영국의 이론가 러스킨(John Ruskin)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비록 러스킨이 기억집적의 산물로 도시를 언급한 바 없지만, 건축은 정신적인 것 뿐 아니라 육체적 행위(work)에 대한 기록을 간직한다고 주장했으며, 그 기록은 개인적이기보다는 사회적이며 집산적인 무엇이고 이 집적된 기억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아우른다고 하였다.³⁵⁾

1955년 알토(Alvar Aalto)는 근대주의건축의 실패가 이성화(rationalisation)에 있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 단, 우리가 그 이성화를 충분히 깊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³⁶⁾ 이성화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데카르트의 방법론에는 두개의 자가당착이 존재한다. 하나는 인간의 이성이 가진 확실성에 대한 믿음이다. 앞의 각주25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성에 대한 믿음은 신의 존재에 기인하고, 우리가 신을 인지하는 것은 역시 이성에 기인하다. 이것은 순환논리이며 기독교적 세계관이 지배적인 당시, 신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렇게 무리는 아니다. 다른 하나는 방법론에 내재한 모순이다. 단순한 논리에서 오차가 보이지 않는 그의 방법론은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험적 요소의 증가로 데카르트가 말하는 명증성이

회색되어간다. 모든 세상의 지식을 의심하여 인간의 이성으로만 참이라고 인식되는 것을 진리로 여기려 했던 데카르트의 방법론은 그 역시 지식의 양이 늘어나면 결국 그가 의심하려 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즉, 현상을 재단해서 명확한 상을 제시하려 한 그의 방법에 충실하면 결국 그 현상을 다시 표현하는 모습을 보인다. 데카르트가 인지하였는지의 여부를 떠나 데카르트의 방법론은 순수한 것과 불순한 것을 동시에 적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다. 알토의 주장의 의미는 여기에 있고 비올레 르 뒤의 오해도 역시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1. Anthony Kenny(ed.), *The Oxford Illustrated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7
2. Beck, L., *The method of Descartes; A study of the Regular*, Clarendon Press, Oxford, 1952
3. Behne A, trans. Michael Robinson., *THE MODERN FUNCTIONAL BUILDING*, The Getty Research Institute for the History and Art and the Humanities, Santa Monica, 1996
4. Blundell-Jones, P. *Architecture as mnemonic: The Accumulation of Memories around Morris's Red House, Nineteenth Century Context*, Vol 21, pp. 20-29, 2000
5. Descartes, R., trans. Cottingham, Stoothoff and Murdoch,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Descartes*, Vol 1, Cambridge

35) Ruskin J., 앞의 책 pp. 178-189

36) "It is not the rationalisation that was wrong in the first period of modern architecture: the wrongness lies in the fact that the rationalisation has not gone deep enough.(A. Aalto, 1955)"

-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New York, 1985
6. Rene Descartes and F. E. Sutcliff, Discourse on Method and the Meditation, Penguin, London, 1968
 7. Frampton, K.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3rd ed, Thames&Hudson, London, 1992
 8. Forty, A., Words and Buildings: a vocabulary of modern architecture, Thames & Hudson, New York, 2000
 9. Rechards, J. M. Pevsner, N. and Sharp, D.(ed.), The Anti-Rationalists and The Rationalists, Architectural Press, Oxford, 2000
 10. Ruskin J, The Seven Lamps of Architecture, Dover Publications, INC., 2nd ed., New York, 1880,
 11. Viollet-le-Duc, trans. Benjamin Bucknall, Lecture on Architecture I, II, 1863-1872, Dover Publications, INC., New York, 1987
 12. Viollet-le-Duc, trans. Kenneth D. Whitehead, THE FOUNDATIONS OF ARCHITECTURE, George Braziller, New York, 1990
 13. 르네 데카르트, 이현복 역, 방법서설: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 문예출판사, 서울, 2001

Erasure of Memory and Theory of Modern Architecture

Kang, Tae-Woong

(Ph.D, Part-Time lecturer, School of Architecture, Dan-Kook University)

Abstract

Since he was a leading figure in nineteenth century architecture, Viollet-le-Duc's architectural theory is crucial to the foundation of modern architecture. He has been called a Gothic Revivalist, a Structural Rationalist and a Positivist. The first title was perhaps due to his vigorous restoration of Gothic works such as Nôtre Dame, but he did not adore the Gothic style just for itself.

Rather, he hoped to deduce some principles from the style. So how did he manage this? In his book "Entretiens sur l'Architecture (Lectures on Architecture), published between 1864 and 1872, he mentions using Descartes' four rules for reaching architectural certainty in contrast with the chaotic situation during that modernising period. Furthermore Viollet-le-Duc's theory can be seen as a serious attempt to translate Descartes' philosophical rules into systems of architectural speculation. Descartes' four rules of doubt are anchored in mathematical propositions, and without mathematical distinctions, none of these rules are valid. In other word, mathematics for Viollet is the yardstick of judgement between distinctness and indistinctness. Many architectural problems arise from this view. In this paper, the validities of applying Descartes' method of doubt to architectural discourse will be discussed in order to address the question:-Did Viollet-le-Duc clearly grasp Cartesian method by which memory was erased from the world?

Keywords: Viollet-le-Duc, Descartes, methodological doubt, Rationalism,
four rules, memory
